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11.(금) 21:30(잠정, 별도공지시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2.2.11.(금)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자	전예진 외교정책팀장(044-200-2136) 황상윤 사무관(044-200-2135)

지구 표면의 70.8%를 차지하는 해양을 지킨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70.8초의 메시지

김부겸 국무총리, 프랑스 정부 주최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 참석

- 김 총리, 해양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촉구
- 우리 정부의 '2050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등 노력과 공약 소개
- ▲플라스틱 오염 협약을 위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안 지지 ▲신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 동참 등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1(금)(한국 시간 17:00, 프랑스 시간 09:00)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개최된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에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 하이브리드(대면/사전 녹화영상) 진행 / 우리측은 사전 녹화영상 방식으로 참석

○ 이번 정상회의는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유엔·세계은행 후원 및 프랑스 정부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UN 등 주요 30여국 및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들이 대면 및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왕치산 중국 부주석, 기시다 일본 총리, 존슨 영국 총리, 솔츠 독일 총리,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산체스 스페인 총리, 모디 인도 총리, 플린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등 참석

- 주최국인 프랑스는 지구 표면의 약 70.8%를 차지하는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상회의 참석 인사들에게 70.8초 분량의 간결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요청했습니다.
 - 각국 정상들은 △해양 생태계 보전, △플라스틱 오염 등 해양 환경 문제 대응, △해양과 기후변화 연계성 고려, △해양 거버넌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 김 총리는 해양 환경 문제, 특히 플라스틱 오염 대응의 시급성을 환기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 '2050년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등 우리 정부의 선도적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습니다.
 - 아울러, 유엔환경총회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신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에 동참하는 등 전 지구적 문제인 해양 플라스틱 문제 대응에 앞으로도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 총리의 해양환경 정상회의 참석은 해양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해양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인식 하에, 지속 가능한 바다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각국의 정상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원 오션 서밋(One Ocean Summit)'을 개최해주신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후변화와 거대한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바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추세라면, 2050년의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오히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작년에는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2050 해양 플라스틱 제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이 없는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신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가,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개개인들이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서 바로 지금 행동합시다.

참고 2

One Ocean Summit 정상회의 개요

□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22.2.9.(수)-2.11.(금), 프랑스 브레스트

○ 2.9.(수)-10.(목) 워크숍 및 포럼

- 워크숍 10가지 주제 : ①해양 거버넌스, ②해양과학 및 연구, ③해양교육, ④지속가능한 해양 이용, ⑤청색경제 및 금융, ⑥해양 에너지 및 식량, ⑦유럽연합 해양정책, ⑧지중해 2030, ⑨극지 해양, ⑩지속가능한 관광
- 포럼 8가지 주제 : ①해양과학, ②해양 문화유산, ③지속가능한 해양산업, ④해상통로의 친환경화, ⑤해양과 여성, ⑥해수면 상승 대응, ⑦항만의 에너지전환, ⑧해양과 선원

○ 2.11.(금) 정상회의

2. 초청대상

- 정상회의 : 해양선도국 정상
- 워크숍 및 포럼 : 정책입안자, 해양과학자, 시민사회 등

□ 상세 프로그램

요일	프랑스 현지 시간	세부 프로그램		비고
2.9.(수)	9:00-10:30	(워크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거버넌스		
	11:00-12:30	(워크숍) 청색경제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	(포럼) 해양 모멘텀 강화를 위한 해양 과학	
	13:00-14:00	점심		
	14:00-15:30	(워크숍) 극지 해양	(포럼) 문화유산으로서의 단 하나의 해양	
	16:00-17:30	(워크숍) 해양 보호의 대상은?		
	18:00-19:30	(워크숍) 2030년의 지중해	(포럼) 지속가능한 바다와 해양산업	
2.10.(목)	9:00-10:30	(워크숍) 우리가 원하는 해양을 위한 과학	(포럼) 해상통로의 친환경화	
	11:00-12:30	(워크숍) 2030년의 에너지·보건·식량의 제공자인 해양	(포럼) 해양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	
	13:00-14:00	점심		
	14:00-15:30	(워크숍) 해양 서비스에 대한 청색 투자	(포럼)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도시들	
	16:30-17:30	(워크숍)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 교육	(포럼) 거대 항만의 녹색에너지전환	
	18:00-19:30	(워크숍) 유럽의 해양	(포럼) 해양과 선원들	
2.11.(금)	09:00-14:00 (한국 시간 17:00-22:00)	(해양환경 정상회의) One Ocean Summit		
	14:00-15:00	점심		
	15:30-18:00	해양과 의회 포럼	해양 지자체 포럼	

□ 해양폐기물 문제가 국제사회에 집중 부각되면서, 유엔환경총회 등 다자 회의 논의 및 역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지역 행동계획*이 대폭 증가

* 우리나라는 APEC, NOWPAP, COBSEA, G20 4개 지역 행동계획에 참여 중

- 특히 제3차 유엔환경총회(‘17.12월) 결의에 따라 ‘해양폐기물 및 미세 플라스틱 특별전문가그룹’(AHEG)을 구성하고 4차에 걸쳐 회의 진행
- 제4차 AHEG(‘20.11월)에서 다수 국가들은 해양플라스틱 오염의 근본 원인인 플라스틱 생산·무역·소비 단계에서의 조치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의 필요성에 공감

□ 제5차 유엔환경총회(‘22.2.28.-3.2.)에서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국제협약 성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

- 독일·에콰도르·가나·베트남이 주축이 되어 유엔환경총회의 사전 회의 성격으로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협약 논의를 위한 비공식 장관급 회의’ 개최(‘21.9월) 및 각료선언문 채택
- 페루·르완다, 플라스틱 오염 협약 결의안* 유엔환경계획에 제출(‘21.9월)

* (공동제안국) 한국, EU 및 EU 회원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가나, 노르웨이, 필리핀, 스위스, 세네갈 등 (‘22.1월 기준)

** (주요내용) 해양 및 육상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및 유통, 재활용, 처리 등 전생애주기 관리에 초점을 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필요하며, 동 협약 협상 개시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설치 요청

□ 배경

- 2022년 순환경제 주류화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프랑스는 One Ocean Summit 계기 '신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에 각국 정부의 동참을 요청

□ 공약 개요

- '18.10월 엘렌 맥아더(Ellen MacArthur) 재단(순환경제 자선기관)과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것으로, 2025년까지 6가지 플라스틱 순환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 목표

※ 6가지 비전 : ①불필요하고 비환경적인 플라스틱 포장 저감 노력, ②재사용 경제 모델 촉진 및 일회용 사용 지양, ③재사용·재활용·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④수거 단계에서의 재사용·재활용률 증진, ⑤재활용 플라스틱 수요 촉진, ⑥친환경 플라스틱 소비 문화 확산

- 플라스틱 오염 협약의 성공적 채택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형성하고, 플라스틱 오염 협약에 반영될 국제 플라스틱 순환경제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립
- 동 공약 참여 정부 및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매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보고서 발간

○ 참여 현황

- 정부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페루, 칠레, 르완다 등 20개 중앙정부 및 지자체
- 기업 : (포장소비 단계) 코카콜라, 펩시코, 로레알, 애플, 월마트, 스타벅스 및 (생산 단계) BASF, Borealis 등 250여개 글로벌 기업